

3월 3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3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다우 1.9%↓, "은행, 3월은 고전" [다우: 7,776.18pt (-1.87%)</p>	<p>미 증시가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과 은행 실적 우려로 인해 일제히 하락했으나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48.38포인트(1.87%) 떨어진 7,776.18을 기록하였으나, 한주간으로는 6.84% 상승률을 유지했음. S&P500지수는 16.92포인트(2.03%) 내린 815.94로 마감했고, 지난 한주간은 6.2% 상승세를 보였음. 나스닥지수 역시 41.80포인트(2.63%) 내린 1,545.20으로 장을 마쳤음.</p>
<p>1,2월 좋았다던 은행들 "3월은..."</p>	<p>월가 CEO들의 발언이 이달 실적에 대해 우려를 확산시키며 금융주 주가를 끌어내렸음. 씨티가 6.7%, 뱅크 오브 아메리카 3.2%, J.P모간도 5.8% 내렸음. J.P모간체이스의 제임스 다이먼 회장은 27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달은 지난 1,2월에 비해 조금 힘들었다(a little tougher)"고 밝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케네스 루이스 회장 역시 3월은 힘든 달이었다고 말했음.</p>
<p>유가, 급등 뒤끝 경계 매물로 하락</p>	<p>국제유가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4% 가까이 떨어졌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96달러(3.6%) 급락한 52.38달러로 마감했음. 최근 급등세에 따른 경제심리와 더불어 달러화 강세 여파가 유가 약세를 초래했다고 시장관계자들은 분석했음. 국제유가는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날 급락세로 주간 상승률은 0.6%에 그쳤음.</p>
<p>OECD "올해 회원국 경제 4.2% 위축"</p>	<p>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기는 대규모 고용 위기를 불러 일으켜 결국 인류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경제 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 특히 유럽과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향해 갈 것이라고 언급.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9일 185개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1%로 제시했으며, 선진국 경제는 -3~-3.5% 성장할 것으로 전망.</p>
<p>美 달러, 유럽지역 통화엔 강세</p>	<p>미 달러화에 엔화가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유럽지역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까닭. 27일(현지시간) 유로-달러 환율은 오후 4시30분 현재 1.7366% 하락(달러가치 상승)한 1.3292달러를, 파운드-유로 환율은 0.9189% 떨어진 1.4320달러를 각각 기록.</p>

제목	주요 내용
G20, FSF 권한 강화할 듯	주요20개국(G20)은 다음 주 런던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금융안정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28일 보도. 1999년 설립된 FSF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2개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
中 기업수익 37% 급감 "수출감소 때문"	지난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월~2월 산업 수익(금융 기업 제외)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37% 급감한 2,191억위안(321억달러)을 기록. 이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흐름과는 상반된 발표. 2월 은행들의 대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으며 M1, M2 통화량도 각각 10.9%, 20.5% 증가. 구매관리자지수(PMI)도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경기도 회복세. 올해 기업들의 수익이 대폭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수출 급감 때문.
日, 소비부양 위해 증여세 감세 검토	일본 정부가 소비 부양을 위해 증여세 감세를 고려 중이라고 28일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 아소 다로 총리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중장년층의 금융자산 활용을 목적으로 상당규모의 감세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2월 경상수지 36억 8,000만 달러 흑자	지난달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음. 경기침체 여파로 수입 수요가 줄면서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환율상승 등으로 다소 호전되면서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음. 경상수지는 작년 10월에 사상 최대 규모인 47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11월 19억 1,000만 달러, 12월 8억 6,000만 달러로 흑자 규모를 줄여오다 1월에는 16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었음.
윤중현 "한. EU FTA 마무리 기대"	윤 장관은 이날 제14차 FTA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한. EU FTA는 한. 미 FTA 못지않게 경제적 효과나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음. 윤 장관은 "한. 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노력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한. 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하반기에는 인도 등과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IMF "한국 디플레 가능성 희박"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디플레이션 위험도 측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가능 지수를 0.14로 예측하며, 조사 대상인 주요 36개국 가운데 스페인과 함께 공동 30위로 예상. 이는 36개국 가운데 디플레 위험에서 6번째로 안전하다는 의미. 이 지수는 1로 갈수록 디플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